

## 앙카라 이야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지도 꼭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알아 가고 적응해 가는 것은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 즐거움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미국에서도 버스를 타본 경험은 없는 터라 약간은 긴장된 기분으로 버스를 타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잘 보기 위해 아내와 앞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고 앞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분이 어깨를 ‘톡톡’쳤습니다. 뒤를 돌아 보니 어느 아주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분이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돈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no, no” 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머리를 앞으로 돌리는 순간 옆에 있던 중년의 신사가 그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가까이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그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돈은 다름 아닌 그 아주머니의 차비를 전달해 달라는 돈이었습니다. 눈치없이 군것질이 미안하기는 했지만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앞자리에 앉을 때는 의례 모든 분들의 차 샅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 버스의 풍경입니다.

^^ 두 번째 에피소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 아내와 학원을 가던 날입니다. 저희들의 언어 학원이 있는 곳은 도시 중심이라 매우 번잡한 거리에 있는데 그날 따라 학원 문 주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디. 의아해 하면서 아내와 함께 학원을 들어 가기 위해 건물 문을 열고 들어 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디. 또 열기 위해 문을 힘을 다해 밀어 보았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아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생각하며 서성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던 길거리에서 복권을 파시는 할아버지가 문을 당기라고 손짓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이곳의 대부분의 문들은 밖에서 밀고 안에서는 당기는 문이었습니다(미국과는 반대이지요? 아닌가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은 더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에 갔다가 여유 있게 나오면서 문을 여는데 갑자기 문 위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디. 아차! 역시 당겨야 하는데 또 실수를 했구나 당황하는 사이 주인이 달려 왔습니디. 위를 보니 밖으로 열리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철근이 제가 문을 얼마나 힘차게 열었던지 무쇠가 휘어져서 문이 밀려 나간 것입니다.

ㅎㅎ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엘리베이터 입니다. 이곳의 엘리베이터들은 그 사이즈가 매우 적습니디. 간혹 넓은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두, 세 사람이 타면 딱 차는 엘리베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엘리베이터의 문들이 수동식이라 엘리베이터가 설 때는 손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동이 습관이 된 저와 아내는 몇 번이나 열릴 줄 알고 서 있다가 내릴 곳을 놓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바깥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열릴 것을 기대하고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열리지 않고 떠나 버립니다. 제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다음 순서를 향해 떠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잠시 전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하다 생각을 놓치면 문을 여는 습관이 되지 않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당신도 이제는 늙었다”고 핀잔을 줍니다.

저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니 당연한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처럼 사셨을까? 그래서 아기로 탄생하셨을까? ‘짜잔~, 타라~’하고 어른으로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신처럼 행동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일까?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의 문화를 익히시고 사람들의 성정을 익히시고 살아 가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엉뚱한 발상이긴 했지만 빌립보서 2 장을 썼던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알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복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사는  
예수님을 copy 하는 것이고 또 “복음과 사명”을 줄인  
말입니다.



담임선생님, 사모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 걸어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너무 짧은 시간이라 꿈같이 지나가고, 가시는 아침에 아내는 웬 종일 우울(?)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하며 담임선생님께서 시금치를 넣은 빈대떡 같은 빵을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을 사다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꼭 드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사역

- 현재 저희들이 협력하는 사역들은 6 유닛의 이란인 선생님가정과 10 개 아프간, 이란 학교가 세워져서 모두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각 학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 기도

- 세워진 학교들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들이 처해있는 힘든 상황들을 통해 도리어 주님의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올해를 교두보로 정하고 20 개의 아프간 학교와 20 개의 아랍학교들을 세울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들의 언어 습득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터어키어도 이제 시작인데 이번 달부터는 이란, 아프간언어를 시작합니다. ππ
- 2 월 19 일에 있을 거주 비자 인터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이곳에 있는 사무실 선생님 4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저희, 하박국샘, 방샘, 탁샘 가정).

새롭게 일하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께 보냅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